

트로피 수집 끝 이정후, 구단에 ML 꿈 정식으로 전한다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키움 이정후가 외야수 부문 골든글러브를 수상, 소감을 말하고 있다.

타격 5관왕 등극으로 연말 각종 시상식서 상 휩쓸어

2023시즌 뒤 포스팅 자격 얻어 “최대한 빨리 나가고파”

리그 최고의 타자로 군림한 이정후(24·키움 히어로즈)가 트로피 수집을 마쳤다.

시상식 참석으로 바쁜 나날을 보낸 이정후는 이제 구단과 마주앉아 정식으로 해외 진출 의사를 전달할 참이다.

이정후는 최고로 손꼽히던 콘택트 능력에 장타력까지 보완하면서 완성형 타자로 거듭났다.

142경기에서 타율 0.349 23홈런 113타점의 성적을 거뒀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타율 1위를 차지하면서 타점, 안타(193개), 출루율(0.421), 장타율(0.575) 1위에 올라 타격 5관왕에 등극했다.

빼어난 성적을 거둔 이정후는 연말 시상식 시즌에 매섭게 트로피를 쓸어들였다.

지난달 17일 KBO 시상식에서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를 수상한 이정후는 한국프로 야구선수협회가 주관하는 리얼글러브 시상식에서 대상인 ‘올해의 선수’를 수상했다.

일간스포츠가 제정하는 조아제약 프로야구 대상에서 대상을 품에 안았고, 한국프로야구은퇴선수협회가 선정하는 최고의 선수상을 받았다.

이어 동아스포츠대상 프로야구 올해의 선수상을 거머쥔 이정후는 프로야구 은퇴선수

임 일구회가 수여하는 최고타자상을 받았고, 스포츠서울 올해의 상 시상식에서도 대상인 ‘올해의 선수’를 거머쥐었다.

대미를 장식한 것은 골든글러브였다. 이정후는 유표 투표수 313표 중 304표를 획득, 외야수 부문 골든글러브 수상자로 뽑혔다. 그는 이번 골든글러브 최다 득표자로 이름을 남겼다.

각종 시상식에서 상을 받느라 바쁜 나날을 보낸 이정후는 골든글러브 시상식 후 한숨을 돌릴 시간이 생겼다.

2023시즌 연봉 협상 등으로 구단과 만나야 하는 이정후는 이 자리에서 해외 진출과 관련해 대화를 나누겠다는 생각이다.

이정후는 “슬슬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시상식 때문에 너무 바빠 고척에 가지를 못했다”며 “연봉 협상 등을 할 때 면담할 시간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전했다.

키움은 여러차례 메이저리거를 배출했다. 모두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서였다.

2015년 강정호가 피츠버그 파이리츠와 계약하며 미국으로 건너갔고, 이듬해인 2016년에는 박병호가 미네소타 트윈스에 입단했다. 2021년에는 김하성이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계약, 미국 진출에 성공했다.

2023시즌 뒤 포스팅 자격을 갖추는 이정후는 “선배들의 사례가 있는 만큼 고향육 단장과 대화를 하다보면 나의 생각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어릴 적부터 품어 온 세계 최고 무대를 향한 꿈이 내년이면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 이정후는 “막연히 상상만 했던 일들이 내년에 눈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 설레기도 하고 심장이 두근거린다”고 설레는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설레기는 하지만, 일단은 현실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이다.

이정후는 “비시즌 기간이라 좋은 상상만 하고 있다. 열심히 하다보면 내년 이 시기 때 나한테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한다”면서 “눈앞에 있는 일부터 순리대로 차근차근 하다보면 시즌이 끝난 뒤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스프링캠프 때부터 준비를 잘해서 내년 시즌이 끝나고 나도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정후는 포스팅 시스템 뿐 아니라 상황에 따라 프리에이전트(FA)로 해외 진출을 노릴 수도 있다.

이정후는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다. 내가 어떻게 나갈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며 “해외에 갈 수 있다면 최대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전남유도, 제주컵전국유도대회서 다수의 메달 획득...유종의 미 거둬

개인전 총 금 4·은 3·동 4 획득...단체전서도 여주시청 우승·세한대 3위



메달 획득 기념 단체사진을 찍는 전남유도선수단

전남유도선수단이 제주컵 국제유도대회서 다수의 메달을 획득하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전라남도유도회(회장 임종안)에 따르면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제주한라체육관에서 개최된 이번 제주컵 국제유도대회에서 전남소속 선수단이 개인전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3개, 동메달 4개를 획득했으며, 단체전에서 여주시청(감독 강장원)이 우승, 세한대학교가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먼저, 개인전에서 총 11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빛나는 활약을 펼쳤다. 특히 일반부에서 활약이 돋보였다.

여자일반부에서는 순천시청 소속 양서우(-52kg급)가 결승에서 오연주(동해시청)에 한 판(누르기)승을 거두며 시작을 알렸다. 뒤이어 박다솔(-57kg급)이 금메달을 획득했고, 신지영(+78kg급)이 아쉽게 은메달을 획득했다.

남자일반부에서는 여주시청 이광희(-90kg급)가 준결승에서 김산(양평군청)에 한판(누르

기)승을 거둬 결승에 진출하였으나, 부상으로 인해 기권하며 은메달을 획득했다. 뒤이어 여주시청 정진형(+100kg급)은 준결승에서 허준영(포항시청)에 아쉽게 패하며 동메달을 목에 걸었다.

전남유도회 소속 이종찬(-81kg급)은 경기에서 연달아 한판승을 거두며 결승에 진출, 결승에서 같은 전남선수단인 강기웅(여수공공스포츠클럽)을 만나 한판(누우머메치기) 승을 거두며 전 경기 한판승과 함께, 금메달을 획득했고, 강기웅(여수공공스포츠클럽)은 은메달을 획득했다.

대학부에서도 세한대학교의 활약이 펼쳐졌다. 세한대학교 박윤수(-66kg급)는 32강전부터 꾸준히 경기를 치러 결승에 진출했으며 결승에서 박찬우(한체대)를 만나 절반(업어치기) 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뒤이어 세한대 천재웅(-60kg급)과 최승일(-90kg급)은 준결승에서 지도 3개를 내주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고등부에서는 순천유도클럽 소속 김보경(-63kg)은 준결승에서 아쉽게 한판을 내주며 동메달을 획득했다.

단체전 남자일반부에서는 여주시청 철원군청을 꺾고 우승을, 대학부에서는 세한대학교가 3위를 차지했다.

임종안 전남유도회장은 “올 시즌 마지막 실업대회에서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둬준 전남유도선수단에게 축하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동부취재본부김승호기자

프로농구 SK 김건우, 은퇴...“원클럽맨 자부심”

지도자로 제2의 인생



프로농구 서울 SK의 포워드 김건우(33)가 정든 코트를 떠난다.

SK는 12일 김건우가 은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시즌부터 고질적인 허리 부상으로 고전했던 김건우는 이번 시즌 부활을 노렸

으나 부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면서 은퇴를 결심했다.

2012년 신인 드래프트에서 2라운드 전체 9순위로 SK에 입단한 김건우는 한 번의 이적도 없이 한 팀에서만 뛰다가 은퇴, 원클럽맨으로 남게 됐다.

김건우는 정규리그 통산 182경기에 출전, 평균 1.8득점 0.9리바운드의 성적을 거뒀다. 특히 38.5%의 높은 3점슛 성공률로 팀 공격력에 힘을 더했다.

김건우는 “처음 입단한 SK에서 한 번도 팀을 떠난 적이 없어 원 클럽맨으로 남게 된 점, 그 기간동안 두 번의 챔피언결정전 우승을 경험한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자부심을 갖는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지도자로 제2의 인생을 살게 될 텐데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SK는 조만간 김건우의 은퇴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뉴시스

“나의 꿈은 끝났다” 호날두, SNS 통해 심경 전해

2022 카타르월드컵 8강에서 탈락한 포르투갈 축구대표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심경을 전했다.

호날두는 12일(한국시간) SNS를 통해 “그동안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 올렸지만, 월드컵 정상에서는 게 가장 큰 꿈이었다”며 “이를 이루려고 지난 16년 동안 훌륭한 선수들과 5번의 월드컵에 나섰고, 포르투갈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나는 모든 경기에서 모든 걸 쏟았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월드컵 경쟁을 외면한 적도, 꿈을 포기한 적도 없다”면서 “하지만 불행하게도 나의 꿈은 끝났다”고 했다.

그는 “이번 대회 기간 많은 팔과 추축이 있었다. 하지만 포르투갈에 대한 헌신은 단 한 순간도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줬으면 한다. 결코 동료와 조국을 외면하지 않았



다”고 밝혔다.

호날두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가나와 조별리그 1차전서 페널티킥 골을 넣었지만 좀처럼 기량을 펼치지 못한 모습이었다. 한국과 조별리그 3차전 부진 이후엔 교체 멤버로 전락했다. 포르투갈 대표팀은 전날 카타르 도하의 알투마마 스타디움에서 치러진 모로코와의 대회 8강전에서 0-1로 패하며 월드컵 우승을 향한 여정을 마무리했다.

이재성 “선수들도 걱정...대표팀 감독 너무 쉽게 선택 말라”

“선수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다”

축구 국가대표팀 미드필더 이재성(30·마인츠)이 차기 대표팀 감독 선임에 놓고 선수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성은 12일 블로그에서 “감독님이 떠나시는, 지금부터가 중요하다”며 “벌써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비판적인 분위기도 있다. 선수들도 걱정하고 있다. 우리도 전혀 아는 바가 없고 들리는 소식만 전해 듣는데 걱정이 된다. 벌써 이런저런 말이 많으니 말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우리를 잘 이끌어주시는 분이 오면 좋겠다. 선수들이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다. 우리의 감독님을 너무 쉽게 선택하지 않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 번이라도 고심하게 되지 않을까”라며 “리더가 누가 되느냐

에 따라 한 팀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몸소 체험했다. 벤투 감독님이 그걸 증명하셨다”고 말했다.

이재성은 파울루 벤투 감독에 관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은 뚜렷한 철학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으셨다. 흔히 고집이 세다고들 하는데, 나도 그런 모습을 느꼈다. 그만큼 자기 철학에 믿음이 강하셨다”며 “그런 감독님을 보며 선수들도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쌓였다. 감독님을 위해 뛰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데, 우리는 감독님을 위해 한 발 더 뛰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포르투갈전 황희찬 투입과 관련, “희찬이를 기가 막힌 타이밍에 투입하셨고 희찬이의 골로 우리가 16강에 갔다”며 “그 경기 이후 선수들끼리 얘기했다. ‘우리 감독님 진짜 명



장이다”라고. 감독님에겐 계획이 다 있었다. 한 수 앞을 바라보시는 분이였다”고 평했다.

이재성은 발목 상태에 관해서는 “그런데 지금 수술한다고 완전히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어쩔 수 없이 수술은 미루고, 월드컵 이전처럼 관리하면서 남은 시즌을 치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